

365일 설레는 36.5°C 따뜻한 행복 인문도시

자치CEO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올해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행복지수는 전 세계 143개국 중 52위를 차지했다. 순위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다섯 계단 정도 올랐지만, 최근 4년간의 점수를 보면 의미가 또 다르다. 2021년(62위·5.85점), 2022년(59위·5.93점), 2023년(57위·5.95점), 2024년(52위·6.05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변화하고 있어서다. 7년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위를 놓치지 않은 핀란드를 보면 부(富)의 축적이 우선순위가 아닌 국가와 국민, 나와 이웃 간의 높은 신뢰도가 곧 행복감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점, 건강한 도시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필자 역시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며, 고심해 왔다.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경쟁 구도 속에서 개인의 재능만 중시되던 도시환경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빈부의 양극화, 세대·성별·지역·인종 갈등, 무차별적인 난개발,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 등. 질적으로 높은 양질의 사회적 환경 조성과 각자 도생의 사회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이다.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인문'에 출발점을 두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기로 했다.

'인문도시 조성', '인문도시정책과 신설' 등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변화였다. 모든 정책에 '인문'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의 인문 활동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갖춘 건강한 도시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며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도시 △주민들의 나눔과 소통이 활발한 따뜻한 공동체 도시 △미래세대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도시 등 5가지 지향점을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책 읽는 동구', '인문 동아리 활동' 지원, '올해의 책' 선정, '동구 인문대학 및 동구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문 역량을 한층 끌어 올렸다. '인문 골든벨'과 '인문 글로벌 지도자 양성', '1인 1악기 지원'을 통한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등 미래 세대에 투자해 동구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평범한 어른으로부터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역사적 인물까지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후세에 역사적 유산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인문 배움터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동구 인문학당',

협(休)과 사색이 있는 축제로 거듭난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성공 개최 등이 모든 일련의 과정까지도 주민이 중심이 됐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년간 공들여 온 결실은 기대 이상이었다. 실제 지난해 8-9월 실시한 '동구민 구정 운영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구정 운영 6대 분야 중 '인문도시' 정책에 대해 36.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만의 특색있는 '인문도시 동구'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도 81%가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지난 7월 1일 광주 동구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구든 쉽게 떠올려 인식할 만한 도시브랜드를 공식화했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 민선 7·8기 출범과 궤를 함께한 데 이어 과거·현재·미래에도 광주 동구하면 단박에 '인문도시'하고 외칠 수 있게끔 그런 도시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수년에 전 서을 강남에 방문한 '드림 소사이어티' 저자인 미래학자 롴프 옌센(Rolf Jensen)은 "고층 빌딩이 행복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 우리 동구는 수도권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도시브랜드의 상징성을 예견하고 준비 태세를 갖춰왔다. 건강한 도시 환경 위에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도시, '365일 설레는 36.5°C 따뜻한 행복도시'가 바로 광주 동구이다.



기고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비우면 채워지는 것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혈액 수급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병원 진료와 수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혈용 혈액 사용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략 6~7%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적혈구 적정보유량이 5일분인데 지금 8~9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혈액원에서는 두 달마다 할 수 있는 수혈용 혈액인 전혈을 줄이고 분획용 혈액인 2주마다 할 수 있는 혈장 현혈을 권장하기도 하면서 전체 현혈참여자는 증가했다.

늘 부족하다는 전혈을 많이 해서 보관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전혈은 적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분리하여 수술에 필요한 수혈용 제제로 사용된다. 여기서 적혈구 보관기간이 35일, 혈소판이 5일 이내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이 놀란다. "보관기간이 이렇게 짧은가요?" 하며 몰랐더라며 자주 현혈해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왜 사용량이 감소한 전혈 대신 혈장 현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궁금해한다. "우리나라는 혈액을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알부민 등 의약품용으로 사용하는 분획용 혈장제제를 매년 50% 가까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WHO는 유전자 변형 등의 이유로 자급자족을 권장하고 있다. 수혈용 혈액이 충분하면 1년간 보관이 가능한 혈장 현혈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철 방학과 휴가로 사용량이 감소한 수혈용 혈액(전혈)마저 확보가 힘들어지는 시기다.

더구나 광주·전남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현혈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렵다. 7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60일간은 학교에서 단체현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이 시기에 현혈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다.

혹자는 "현혈의 집에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2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경우 현혈의 집 현혈자 수는 거의 절반

이나 줄었다.

그 이유는 2024년 대학입시부터 교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올해 학교에서 생애 처음 현혈한 고등학생들의 재현혈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다. 이 비율이 점점 커질까 싶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부족한 현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기간에 줄어드는 10대와 20대 현혈자를 대신해서 중장년층 현혈자가 늘어나야 한다.

방학 중인 학교를 대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대기업 등 기관과 단체에서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현혈 버스가 직장으로 향하지만, 휴가철인 이 시기에 현혈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딜레마이다. 결국 해답은 현혈의 집에서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혹여 수술이 지연되었다가 마침내 수술하게 되었는데 혈액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면 되겠는가? 반드시 많은 분이 휴가 가기 전 또는 휴가 동안 현혈에 동참해주어야만이 여름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경전인 백유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동네잔치를 위해 매일 매일 짜야 하는 소의 젖을 한 달 동안 짜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잔치 날 손님 대접을 위해 우유를 짜려고 했는데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비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나누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도 '나중에' 하며 미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세포인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현혈이다.

482번째 대화 현혈자인 송화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러분도 휴가 기간에 비우면 채워지는 현혈에 참여해 보길 바란다. 분명 나눔의 기쁨도 가득할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